



춤추는 달팽이

#인천 부평구 #시설공사비 지원

달팽이미디어도서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춤추는달팽이로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춤추는달팽이로 변신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십정동으로 터전도 옮겼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러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에서 노년 혹은 예비노년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산곡동에서 운영하던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월세 인상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 노인특성화 도서관으로의 변신은 생존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달팽이’로 시작된 마을에서 12년의 역사를 이어 가고자하는 달팽이

달팽이라는 느린 느낌, 어르신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느낌에 역동성을 주는 수식어 ‘춤추는’을 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이 우울하지 않게 함께 역동적으로 맞이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춤추는달팽이의 2017년 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 지원비가 생산적인 일로 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춤추는달팽이의 경우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지만 정말 절박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거취를 결정한 이후 이사업체 기피업종인 도서관 이사비용이 3,000,000원, 기존 도서관 철거비용이 4,7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사비용과 철거비용 마련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6월 이사를 가기 직전까지 상설 베품시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비용에 비하면 베품의 간이었습니니다. 긴급지원119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다 빚으로 떠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춤추는달팽이는 문을 닫을 위기에서 새롭게 기사회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잘나가고 인천시에서 잘 나가는 도서관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나 구의 어떤 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기관 사무국장을 제안 받았을 때 머리에 번개가 치면서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들이 현실이 되면서 ‘노인특성화도서관’이라는 생소하고 낯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 마을학교, 초등학교 연계 활동 등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동네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했었으니, 동네를 떠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또 새로운 길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6월에 산곡동에서 굿바이 달팽이 환송 행사를 가졌고, 9월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재개관 행사, 셀위댄스 달팽이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한해는 정말 극적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마을을 떠난 달팽이를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도서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먹을 것 참아가며 꼬깃꼬깃하게 모은 돈을 건네던 남매, 앞다투어 짐 싸는 걸 도와주던 마을 주민, 여성회 회원. ‘굿바이 달팽이’ 행사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으로의 변신은 최선의,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2017년, 춤추는달팽이는 긴급지원119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119가 아니었다면 후원금도 많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빚에 대한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고민은 없습니다. 긴급지원119라는 지원사업의 이름답게 절박한 상황에서 적소에 잘 쓴 것 같습니다.

춤추는달팽이의 2018년 은 어떠한가요?

어르신을 위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림책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림책이 주는 치유의 힘을 알고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돌보는 어르신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림책을 교재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가나다 교실도 진행하고자 하며 예비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십플러스 인생학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 춤추는달팽이의 올해 중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이 말을 실감하는 한해였습니다.

